

# 느리고 고요하게, 하찮은 사물들 속에서 발견한 심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6〉 우일선 선교사 사택

생산성과 효율성 만이 강조되는 오늘날 ... 작고 사소한 것,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로부터 '작은 저항'이 시작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보와 자극에서 벗어나 평소 눈치채지 못했던 존재와 변화에 시선을 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도록 이끄는 전시가 마련됐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이 광주 남구 양림동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의 정원'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그림자 콜렉티브의 잉그리드 프랑켄, 김신우, 성용희가 기획했다.

작품은 홍보와 상품화에 적합한 이미지로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오늘날의 상황 속 예술 역시 정치·사회·환경적 위기를 뒷받침하는 생산과 소비의 구조를 다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전시는 이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쉽게 소비되거나 상품화되지 않는 섬세한 작품과 작은 변화에 시선을 돌린다.

이 같은 전시의 방향은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이어온 미세한 존재와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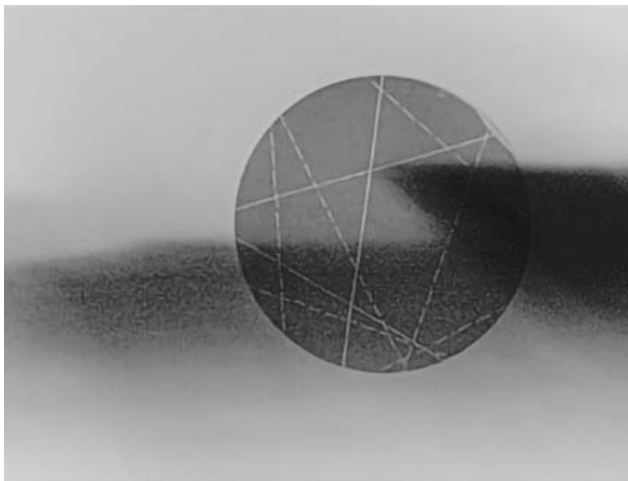
수세기 동안 물과 함께 살아온 네덜란드의 환경은 생태계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이 됐다.

또 웹브란트와 페르메이르는 덧없이 변화하는 빛과 평범한 사물에 주목했고, 안토니

네덜란드 파빌리온 '감지하기 어려운 것들의 정원'...11월15일까지



왼쪽부터 비니 존스 작 '푸름은 합의다', 마테오 마랑고니 & 디터 반도렌 작 '별뿔', 임고은 & 이고르 세브츠크 작 '하얀 잉크로 쓰여진 하얀 책'



## 세대를 이어온 환경의 미세한 변화, 쉬이 감지되지 않는 세계로의 초대 연약하고 미미한 몸짓의 '작은 저항'...존재와 변화에 대한 질문과 고찰

판 레이우엔훅은 현미경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의 세계를 드러냈다.

전시에는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리타 후프와이크, 임고은 & 이고르 세브츠크, 비니 존스, 마테오 마랑고니 & 디터 반도렌, 살로메 무이, 샘 쇼이어만 등 6개 작가·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림자 속을 떠다니는 먼지와 햇빛의 움직임, 버려진 물건 등 평소 쉽게 지나치는 존재와 현상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다.

임고은 & 이고르 세브츠크의 '하얀 잉크로 쓰인 하얀 책'은 한때 '향신료 제도'로 불렸

던 말루쿠제도의 한 섬에 남겨진 기억에서 출발한다.

섬 곳곳에 흩어진 오래된 무덤과 무너져 가는 요새, 낡은 우물과 향신료 정원의 이야기를 담았다.

육두구와 정향의 향이 감도는 공간에는 흰 잉크로 쓴 흰 책이 놓인다.

끝없는 질문과 미완성의 답으로 채워진 책장은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기억과 망각 사이에 남은 이야기를 불러낸다.

샘 쇼이어만의 '선 트레이싱'은 덧없이 지

나가는 햇빛의 경로를 따라가며 현재를 붙잡으려는 작업이다. 보이지 않고 형태도 없는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순간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마테오 마랑고니 & 디터 반도렌의 '별뿔'은 햇빛과 떠다니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인공 생명체 군집을 선보인다.

자연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음악을 만들어내며 관람객은 스쳐 지나가는 햇살이 소리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비니 존스의 '푸름은 합의다'는 우일선 선교사 사택 곳곳을 거닐며 경험하는 작품이다. 공간을 규정하는 익숙한 경계를 넘어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를 질문한다. 신체와 주변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간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주목한다.

살로메 무이의 '쉼터 아틀리에'는 개인적인 피난처를 탐구한다. 작가와 나는 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버려진 재료로 만든 작은 모형으로 옮긴다. 연약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는 작은 구조물 하나하나를 각자의 조용한 피난처로 제시한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7시간 시차에서 출발한 작업도 선보인다.



샘 쇼이어만 작 '선 트레이싱' (사진 위)와 살로메 무이 작 '쉼터 아틀리에'

작품은 초대된 관객의 침실에서 시작해 파빌리온 입구까지 이어진다. 관객은 암스테르담의 밤을 주머니에 담은 채 하루를 보내듯 아직 찾아오지 않은 아침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전시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복기차



김신우 네덜란드 파빌리온 공동기획자가 살로메 무이의 '쉼터 아틀리에' 작품을 관람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